

주임신부: 김대하 (요한 사도)

본당회장: 권병학 (요한 사도)

TEL: (905) 545-3004

FAX: (905) 545-7895

연중 시기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요한 1,29)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 시 (본당)
	주일 17 시 30 분 (공소)
평 일	매주(화) 20 시
	매주(수) 11 시
	매월 첫(목) 19 시
성모 신심 미사 십자가의 길	매월 첫(토) 11 시
성시간	매월 첫(목) 19 시 미사 중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9 시 30 분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수요일 9 시 30 분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토) 10 시
울드레야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 ONE HEART, ONE SOUL
A Campaign for the Diocese of Hamilton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적립금액(\$76,263)
- 본당 소식

◎ 전례 안내
▶1/18(일) 연중 제 2 주일(일치주간)미사 (본당 11:00)
▶평일 미사 없음 (신부님 휴가)
▶1/25(일) 연중 제 3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 환영합니다.
본당 신부님의 휴가로 오늘 미사는 키치너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의 양현직 요한사도 주임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십니다.

◎ 제병, 초 봉헌
올해 사용할 제병과 초 봉헌을 2/1까지 받습니다.
전례분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분과 공지사항
2025년 헌금 영수증은 본당 사무실에서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재정분과장 하태성 베드로 형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의 수호 성인 이야기
오늘 수호성인 이야기는 <성녀 아네스>입니다.
다음주는 <성 베네딕도>입니다.

단체소식

◎ 복사단 회합
오늘 미사 후 복사단 회합이 있습니다.

◎ Together Bloom (서로에게 빛이 되어 피어나다)
2026 년 ME 의 밤으로 초대합니다.
대상: ME 주말을 다녀오신 모든 부부
일시: 1/31(토) 5 시 미사로 시작
장소: 토론토 예수성심 천주교회
260 Judson St. Etobicoke ON
참가비: 부부당 \$130
문의: 김영미 스텔라 289-823-0962

◎ 2026 년 캐나다 한인 꾸르실리스따 쇄신 피정
일시: 2/6 (금) 오후 5 시 – 2/8 (일) 오후 3 시
장소: St. Francis Centre
208501 Highway 9, Caledon
주제: 만남/참가비: \$320
신청마감: 1/25 신청서는 복도 테이블에 있습니다.
문의: 울드레야 간사 박혜영 수산나

◎ 가톨릭성서모임 <창세기/탈출기/마르코/요한반 모집>
4~6 명그룹으로 매주 1 회 화상을 통해 나눔 진행.
* 창세기 반: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 탈출기 반: 창세기 공부를 마치신 분
* 마르코반: 창세기와 탈출기 공부를 마치신 분
* 요한반: 창세기, 탈출기와 마르코 공부를 마치신 분
* 접수 기간: 2/15
* 문의: 이상은 엘리사벳 289-933-0242

공소 소식

◎ 1/18(일) 오늘 공소미사 없음
◎ 1/25(일) 사목회의(미사 후 사목회장택)
◎ 1 월 세례 축일자 1/5 에밀리아나 (송인순)

친교 식사 및 제대꽃
오늘 친교식사는 4 구역에서 ‘배추 된장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 5 구역 2/8: 6 구역 2/15: 7 구역

구역 모임 소식
이달의 묵상 주제 (마태 3, 13-17)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방법’
4 구역 1/18(일) 친교일 13:00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 주소서.
◎ 아멘.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람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56 명)			
주일헌금	\$1,760	교무금	\$300
감사헌금	\$100	성전건립	\$0

◎ 1 월 축일자 (14 명)
1/ 1 마리아(황기영, 신낙흥, 현혜경)
1/ 5 시메온 (한기종) 1/13 레미지오 (유루이)
1/17 안토니오(권이용) 1/19 비아 (임연신)
1/20 세바스찬(신용두), 세바스티아노(김창욱)
파비아노(이준환)
1/21 아네스(이유진, 김지현, 이미란)
1/25 바오로(이종수)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 18	이은영 힐데가르트	이준서 요한, 이준우 바오로	1 독서: 김의수 안드레아 2 독서: 박혜영 수산나	이인선 쟈마 박규혜 카타리나
1/ 25	임연신 비아	최다혜 플로라, 최다희 보나	1 독서: 이준우 바오로 2 독서: 최다인 안나	이준서 요한 김규리 라파엘라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김영훈 미카엘 신부
전포성당 주임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 이후 공생활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예수님의 신원과 사명에 대한 예고편이자 압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 구원을 위한 ‘속죄양’(요한 1,29)이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는 순간 세례자 요한은 그분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내다보았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성부 하느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 즉 역사를 뛰어넘어 선재(요한 1,30)하시는 성자 하느님이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 현현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지만,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써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세례(요한 1,33)를 베푸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넷째,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과 함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 왔던 ‘하느님의 아드님’(요한 1,34)이십니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 교회의 신앙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하느님이자 참사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영(靈)이 삼위일체 하느님이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증언한 것을 우리도 “보라.”(요한 1,29)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자기가 먼저 보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요한 1,34) 여기서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 복음의 상징이 독수리이듯 우리도 천리안을 가지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더 나아가 ‘본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묵상하고, 그분의 현존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관상)을 말합니다.

지난주 주님 세례 축일을 기점으로 연중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중시기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중심으로 구원 신비를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듯이 연중시기는 신앙인들의 일상도(日常道)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전례, 기도, 봉사, 희생은 모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분 안에 머물게 되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대 철 주 보

선포와 나눔의 해
2026 사목지침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연중 제 2 주일(일치주간) (2026. 1. 18.)

제 1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9,3.5-6
화답송 시편 40(39),2 그나과 4 그나.7-8 그나.8 다-9.10(◎ 8 나과 9 그)



후렴. 주 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왔나 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시작입니다. 1,1-3
복음 환호송 요한 1,14.12

-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 알렐루야.
- 복 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9-34